

## 가곡의 시조시 주제 연구\*

신 응 순\*\*

### 〈국문초록〉

가곡이 음악과 문학이 하나가 될 때 그 의미가 발현된다고 본다면 그 동안 전승되어온 가곡 중에서 선정되고 악보화된 현재 불리워지고 있는 가곡들의 주제 분석은 가곡사에 나름대로의 의미와 자리매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가곡 향유층들의 생활상과 풍류상이 무엇이고 곡과 가사 내용의 상관성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

텍스트는 김기수편 정가 남창 100선, 여창 88선이다.

김기수는 두봉 이병성, 운남 이주환, 운초 장사훈의 채보분을 참고하여 남창 26곡 여창 15곡을 한바탕으로 정리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남창 가곡은 우조 11곡, 계면조 13곡, 변조 2곡 모두 26곡이다. 여창 가곡은 15곡으로 우조 5곡, 계면조 8곡 변조 2곡이다. 남창 26곡과 여창 15곡 도합 현전 가곡은 모두 41곡이다.

주제 분류는 서원섭의 평시조 분류를 따랐다. 비슷한 주제를 유형화하여 9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비교 대상은 『교본역대시조전서』과 남창 가곡, 남창가곡과 여창가곡이다.

분류 결과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본역대시조전서』과 남창 가곡의 비슷한 주제 분포이다.

이는 가곡의 향유층이 주로 선비층이었던 관계로 정치적인 이유로 향리로 돌아와 자연과 벗삼았던 선비들의 생활상과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위 글은 제 38차 전국학술발표대회(2004.11.27, 중앙대)에서 발표한 논문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보완에 도움을 주신 토론자·심사 위원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중부대

둘째는 남창과 여창 가곡에 있어서의 남녀 사랑의 주제의 현격한 차이이다. 이는 당시 성윤리에 억눌려 있던 조선 여인들의 놀이 문화가 흔치 않았던 관계로 인간적인, 어쩔 수 없는 표현 본능을 그녀들의 놀이 문화인 가곡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는 가곡 진행상의 주제 변화이다.

가곡은 대체로 빠르기 순서, 만·중·삭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게 곡과 가사내용이 대체로 부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는 농·낙·편으로 가면서 무명씨의 작품이 많다는 점이다.

농·낙·편 이후 외설의 주제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윤리관으로 인해 실명으로 거론하기에는 선비들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섯째는 인생행락의 주제인 태평가가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낙·편 이후 외설의 주제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윤리관으로 인해 실명으로 거론으로 거론하기에는 선비들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섯째는 인생행락의 주제인 태평가가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평가는 이삭대엽의 변화곡으로 매우 느리고 화평스러운 곡이다. 처음 선비들의 근엄한 자세로 다시 돌아간다. 농·낙·편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지막 곡인 젊잖은 태평가로 자세를 바로잡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선비들의 풍류와 생활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가곡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의 생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음악이 가곡 입을 입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핵심어** : 가곡, 남창가곡, 여창가곡, 초삭대엽, 소용, 태평가, 사랑, 자연, 하규일, 김기수

## I. 서론

우리나라 전통 성악은 정가와 속가로 나누어진다. 정가는 가곡, 가사, 시조로, 속가는 민요, 판소리, 잡가 등으로 나누어진다. 정가(正歌)는 '바른 노래'라는 뜻으로 사대부나 선비층에서 인격 수양의 수단으로 불렸으며, 속가(俗歌)는 '속된 노래'라는 뜻으로 서민층이나, 상민층에서 서민들의 애환을 노래했다.

가곡은 정가 중에서 대표적인 음악으로 우리 고유의 시조시를 엮어 부르는 가장 오래된 수준 높은 곡이다. 관현악 반주에 맞춰 16박, 10박의 5장 형식으로 부르며 '만년장환지곡'이라고도 한다. 이 전통 가곡은 500여년 전부터 우리 음계로 된, 우리 조상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우리 고유의 노래이다. 가곡의 원형은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이었다. 만대엽은 너무 느려 18세기 경에 없어졌고, 조금 빠른 중대엽도 19세기에 없어졌다. 이보다 더 빠른 삭대엽도 여러 곡으로 파생되어 오늘날의 가곡 한 바탕을 이루었다.<sup>1)</sup>

가곡은 우리 민족의 전통 성악곡이다. 가곡을 이해하는 데에는 음악 속에 내재된 음악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곡

---

1) 가곡은 만대엽·중대엽·삭대엽이 원형이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느린 만대엽은 영조 이전에 이미 없어지고 중대엽과 삭대엽만이 남았다. 이 중대엽과 삭대엽은 각각 1·2·3으로 증가되고, 다시 삭대엽에는 농·낙·편 등의 파생곡이 새로 등장하고, 고종 연간에 가객 박효관과 안민영이 엮은 『각곡원류』에 이르러 중대엽은 없어지고 삭대엽이 한층 발전함으로써 현행가곡의 체계가 확립되었다.

장사훈, 『한국음악사』(정음사, 1976), 461쪽.

만대엽의 최초의 악보는 금합자보(1572년), 없어진 악보는 청구영언(1728년), 중대엽의 최초의 악보는 양금신보(1610년), 없어진 악보는 가곡원류(1876년), 삭대엽의 최초의 악보는 현금유문동기(1620)이다.

신용순, 『현대시조시학』(문경출판사, 2001), 18쪽.

에 실려 불리워져 온 문학적인 면을 간과하고서는 가곡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고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곡의 음악적 요소들은 국악을 전공한 이들에 의해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음악적인 면과 문학적인 면이 조화를 이룰 때 음악의 가치가 발현된다고 본다면 문학적인 면 또한 도외시할 수 없다.

가곡이나 시조창은 어떤 시조시이건 같은 곡에 여러 시조시들을 끼워 부를 수 있게 되어 있다. 한 곡에 한 시조시만이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조시들이 불리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같은 곡에 아무 시조시들이 불리워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곡조에 맞는 비슷한 풍도의 시조시들이 불리워졌을 것이다.<sup>2)</sup>

그러나 선인들이 즐겨부르던 같은 곡에 여러 시조시들이 불리워졌던 악보화된 자료들은 188수 밖에 남아있지 않다. 악보화된 자료에 어떤 노래의 내용들이 전승되어 불리워지고 있는지 그 주제 분석이 본고의 목적이다. 필자는 금하 하규일 노래에 준거하여 편보한 김기수 편의 남창 가곡 100선, 여창 가곡 88선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아무리 같은 곡조에 많은 시조시들이 불리워졌다해도 그 곡에 어울리는 시조시들이 불리워졌을 것은 당연하다. 정착된 악보화된 곡조에 실려진 시조시들이 그 곡조의 대표적인 내용이라 할 수는 없어도 그 곡조에 맞는 내용들이 많이 불리워졌고 그래서 취사 선택되었기 때문에 악보화되었으리라 생각된다.

---

2) 당시에 가곡이 가곡에 시조시를 노랫말로 해서 부른 것으로 보면 적어도 -시조라는 명칭이 생기기 이전에는 시조시도 함께 가곡이라 불렀지 시조시를 따로 떼어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문학과 음악이 하나였지 둘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조가 생기기 이전의 시조의 명칭에 대한 재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조시는 음악적인 면의 가곡과 구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문학적인 면의 가곡의 가사로 편의상 사용했다.

김기수 편 의 정가 남창 100선 여창 88선의 주제를 살펴보면 당시에 어떤 곡조에 어떤 내용들이 불리워졌고 어떤 내용의 곡들이 전승되어 왔는지 알 수 있으며 가곡 향유층들의 생활상과 풍류상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곡 원류』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 악보 대신 연음표<sup>3)</sup>로 전승되어온 『가곡 원류』의 많은 곡들은 현재에는 불리워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문학으로써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가곡이 음악과 문학이 하나가 될 때 그 의미가 발현된다고 본다면 그동안 전승되어온 가곡 중에서 선정되고 악보화된 현재 불리워지고 있는 가곡들의 주제 분석은 가곡사에 나름대로의 의미와 자리매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취지가 여기에 있다.

## II. 현행 악보 채보 경위

『가곡원류』는 고종 13년(1876년) 박효관과 안민영이 편찬한 시조집이다. 이는 시조창을 위해 편찬된 것이 아니라 가곡창을 위해 편찬된 책이다. 국본 『가곡원류』 필사본은 원래 명가 하규일(1867-1937) 소전이었던 것이 운남 이주환(1909-1972) 전국립국악원장이 입수하여 간직하다가 국립국악원에 기탁한 것이다.

『가곡원류』 가곡 총 855수중 84수가 연음 표시가 없다. 연음 표시가

3) 연음표는 가곡의 부르는 법을 잊지 않고 다시 깨우치기 위해 시조시 옆에 여러 가지 부호를 만들어 붙인 일종의 압표인 동시에 악보의 구실을 하고 있다. 누르는 표, 드는 표, 눌러세는 표, 막 내는 표, 접어 드는 표, 연음표, 든 홀림표, 반각표 등이 있다.

『가곡원류』(은하출판사, 1989), 장사훈 해설편 8쪽.

없는 시조는 창법을 잃어 전창되지 않거나 실제 노래로 불리워졌지만 악보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4)</sup>

총 855수 중 남창부가 664수, 여창부가 191수이다. 이렇게 가곡원류 시절 가곡은 엄청난 양이 연습표에 의해 불리워졌다.

현재 전창되고 있는 가곡은 남창, 여창 할 것 없이 금하 하규일(1867-1937)의 유음들이다. 하규일은 1885년 이후로 하중곤의 문단을 거쳐 박효관과 쌍벽이었던 최수보에게 가곡을 사사했다. 그 후 1911년 10월부터 조선 정악 전습소의 학감과 서울 중부 상대동 여악분실장을 맡으면서 가곡을 가르쳤고, 1926년부터 1937년 5월까지 11년 동안 이왕직 아악부 촉탁으로 재임, 가곡을 전수함으로써 현 가곡의 계통이 이어져왔다. 1926년 이전까지는 가곡은 구구전승했으나 1926년 이후 악보로 채록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하규일이 전승한 곡수는 남창 85수, 여창 71수 합 156수와 따로 장진주 1수가 전한다. 그러나 현재는 대개가 한바탕만 전승되고 있는 실정이다.<sup>5)</sup>

김기수는 두봉 이병성, 운남 이주환, 운초 장사훈의 채보분을 참고하여 남창 26곡 여창 15곡을 한바탕으로 정리했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남창 가곡은 우조 11곡, 계면조 13곡, 변조 2곡 모두 26곡이 전해오고 있다. 여창 가곡은 15곡이 전해오고 있는데 우조 5곡, 계면조 8곡 변조 2곡이다. 남창 26곡과 여창 15곡을 합하면 현전하는 가곡은 모두 41곡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41곡은 각각 정해진 시조시 하나만을 그 노래말로 삼지 않고 곡조에 따라 여러 종류의 시조시를 노래말로 삼고 있다.

텍스트는 현재 악보화된 김기수 본 '남창 가곡 100선'과 '여창 가곡 88냥'이다.

4) 위의 책, 해설편 9쪽.

5) 장사훈, 『국악총론』, 새광음악출판사, 1985, 429-431쪽.

### Ⅲ. 악보 자료 분석

#### 1. 텍스트와 텍스트 주제

전바탕 27곡으로 곡수는 남창 26곡 여창 15곡 사설수는 남창가곡 100수, 여창 가곡 88수이다. 순서는 남녀창 가곡의 목차를 따랐다. 시조 사설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남창 우조 초삭대엽	동창(東窓)이 밝았느냐 (전가한거)
	남훈전(南薰殿) 닭 밝은 밤에 (연주충군)
	천황씨(天皇氏) 지우신 집을 (연주충군)
	남팔(南八)아 남아(男兒) (고사회고)
	동지(冬至)스달 기나긴 밤을 (연모상사)
우조 이삭대엽	강호(江湖)에 기약(期約)을 두고 (감격군은)
	가마귀 싸호는 골에 (교회경계)
	주공(周公)도 성인(聖人)이셨다 (학문수덕)
우조 중거	인심(人心)은 터이되고 (삼강오륜)
	청강(淸江)에 비듯는 소래 (사계절후)
	창랑(滄浪)에 낚시 넣고 (강호한정)
우조 평거	경성출(景星出)에 경운흥(卿雲興)허니 (성세일민)
	눈맞아 휘여진 대를 (감물서경)
	셋별 지자 종달이 떴다 (전가한거)
우조 두거	구름이 무심탄 말이 (우국개세)
	태산(泰山)이 높다하되 (학문수덕)
	녹수청산(綠水靑山) 깊은 골에 (강호한정)
우조 삼삭대엽	도화(桃花) 이화(李花) 행화(杏花) 방초(芳草)

- 돌아 (인생무상)  
 적토마(赤馬) 살지게 먹여 (장부호방)  
 추강(秋江)에 월백(月白) 커늘 (강호한정)  
 굴원(屈原) 충혼(忠魂) 배에 넣은 고기 (강호한정)  
 가마귀 눈비 맞아 (연주충군)
- 우조 소용      불아니 땀지라도 절로 익는 솥과 (인생행락)  
                  아마도 태평할 손 (복수송축)  
                  어제밤도 혼자 곱송그려 새우잠 자고 (연모상사)  
                  저 건너 검어무투르만 바위 (연모상사)
- 우·계 반엽      삼월 삼일 이백도홍(李白桃紅) (음주취락)  
                  흐리나 맑으나 중에 이 탁주 좋고 (전가한거)
- 계면 초수삭엽      청석령(靑石嶺) 지나거다 (연주충군)  
                  앞 못에 든 고기들아 (연모상사)  
                  창(窓)밖에 국화(菊花)를 심어 (안빈낙도)
- 계면 이삭대엽      잘새는 날아들고 (강호한정)  
                  청산(靑山)은 어찌하여 (학문수덕)  
                  전원(田園)에 남은 흥을 (강호한정)
- 계면 증거      청풍(靑風) 북창(北窓) 하에 (전가한거)  
                  있으렴 부디 갈다 (이별애상)  
                  청산(靑山)이 적요(寂寥)한데 (전가한거)  
                  지금에 오를만한 (이별애상)  
                  한산섬 달밝은 밤에 (우국개세)
- 계면 평거      반(半)넘어 늙었으니 (인생무상)  
                  산은 옛산이로되 (인생무상)  
                  말이 놀라거늘 (강호한정)
- 계면 두거      악양루(岳陽樓)에 올라앉아 (안빈낙도)



	이몸이 죽어가서 (단심충절)
	석마(石馬)는 날아들고 (강호한정)
계면 삼삭대엽	석양(夕陽)에 취흥(醉興)을 겨워 (음주취락)
	이런들 어떠하며 (기탁풍유)
	박랑사중(博浪沙中) 쓰고 남은 철퇴(鐵槌)를 (연모상사)
	백년(百年)을 가사(可使) 인인수(人人壽)라도 (음주취락)
	삭풍(朔風)은 나무 끝에 불고 (장부호방)
계면 소용	어호마 기 뉘오신고 (기탁풍유)
계면 언룡	이태백(李太白)의 주량(酒量)은 귀 어떠하여 (음주취락)
	십재(十載)를 경영(經營) 옥수연(屋數椽)하니 (감물서경)
	기러기 풀풀 다 날아가니 (연모상사)
	팔만대장(八萬大纛) 부처님께 비나이다 (연모상사)
	어촌(漁村)에 낙조(落照)하니 (강호한정)
계면 평룡	월정명(月正明) 월정명(月正明)커늘 (강호한정)
	남훈전(南熏殿) 순제금(舜帝琴)을 (우국개세)
	물우희 사공(沙工) 물아랫 사공(沙工)들이 (귀환축원)
	만리장성(萬里長城)엔 담안에 (안빈낙도)
	뿌리 깊은 나무는 남창 (용비어천가)
계면 계락	철총마(鐵聰馬) 타고 보라(甫羅)매 받고 (감격군은)
	술아래 동자(동자)다려 물으니 (강호한정)

- 남산(南山)에 눈 날리는 양은 (인생행락)  
 화란(花暖) 요지(瑤地) (향령무)  
 주국(周國) 태왕(太王)이 (용비어천가)  
 옥전요궁(玉殿瑤宮) 주관현(奏管絃) (향령무)
- 우조 우락  
 조다가 낙시대를 잃고 (강호한정)  
 임으란 회양금성(淮陽金城) 오리나무가 되고  
 (연모상사)
- 우조 언락  
 이선(李禪)이 집을 반하여 (강호한정)  
 벽사창(碧紗窓)이 어룬 어룬커늘 (연모상사)  
 백구(白鷗)는 편편(翩翩) 대동강상(大同江上)  
 비(飛)하고 (음주취락)  
 일월성진(日月星辰)도 천황씨(天皇氏) 적  
 (고사회고)  
 아흔아홉 곱먹은 老丈이 (음주취락)  
 푸른 산중(山中) 백발옹(白髮翁)이 (안빈낙도)  
 신란성대(新羅聖代)소성대(昭盛大) (처용무)  
 일호주(一壺酒)로 송군봉래산(送君蓬萊山)하니  
 (소요유람)
- 우·계 편락  
 나무도 바히 들고 없는 메에 (연모상사)  
 청홀치 육날 미투리 신킶 (기탁풍유)  
 솔아래에 굽은 길로 (불심지정)  
 봉황대상(鳳凰臺上) 봉황유(鳳凰游)러니  
 (감물서경)  
 목 붉은 인생치(人生雉)와 (강호한정)  
 석인(昔人)이 이승(已乘) 백운거(白雲去)하니  
 (감물서경)

- 계면 편삭대엽 진국명산(鎭國名山) 만장봉(萬丈峰)이 (감격군은)  
 낙양성리(洛陽城裡) 방춘화(方春花) 시절(時節)에  
 (소요유람)  
 천금준마(千金駿馬)로 환소첩(喚少妾)하여  
 (음주취락)  
 천하명산(天下名山) 오악지중(五嶽之中)에  
 (인생무상)  
 남아(男兒)의 소년(少年) 신세(身勢) (전가한거)  
 남산송백(南山松柏) 울울창창(鬱鬱蒼蒼)  
 (감격군은)  
 문독(文讀) 춘추(春秋) 좌씨전(左氏傳)하고  
 (고사회고)  
 화과산수염동중(花果山水簾洞中)에 (고사회고)  
 어저 만재(萬載)이여 (감격군은)
- 계면 언편 한송정(寒松亭) 자진솔 비여 (음주취락)  
 저건너 태백산하(太白山下)에 (연모상사)  
 각시(閼氏)네 하여슨채 마소 (교회경계)
- 우조 우룡 삼월삼일 이백도홍(李白桃紅) (음주취락)
- 우조 우편 봉황대상(鳳凰臺上) 봉황유(鳳凰遊)러니  
 (감물서경)  
 산하천리국(山河千里國)에 (처용무창사)  
 건곤(乾坤) 유의(有意)하여 (인생무상)
- 계면 태평가 이려도 태평성대(太平聖代) (인생행락)
- 여창 우조 이삭대엽 버들은 실이 되고 (연모상사)  
 간 바밤에 부든 바람에 (감물서경)

- 동짓달 지나긴 밤을 (연모상사)  
 창오산(蒼梧山) 성제혼(聖帝魂)이 (연모상사)  
 왕상(王祥)에 잉어 (사친효도)  
 인생이 둘까 셋까 (인생행락)  
 내 언제 신이 없이 (연모상사)
- 우주 증거    청조야(靑鳥)야 오도고야 (연모상사)  
 청계상(淸溪上) 초당외(草堂外)에 (감물서경)  
 사랑 뭉여 불이 되고 (연모상사)  
 간 밤에 비 오드니 (연모상사)  
 창일(倉頡)이 작자(作字)혈제 (공규원모)  
 눈 맞아 휘어진 대를 (갈물서경)
- 우주 평거    일소(一笑) 백미생(百媚生)이 (추모찬송)  
 이몸 식여져서 (연모상사)  
 꿈에 다니는 길이 (연모상사)  
 꿈에 왔든 님이 (연모상사)  
 일정(一定) 백년(百年)을 산들 (인생행락)  
 어저 내일이여 (연모상사)
- 우주 두거    일각(一刻)이 삼추(三秋)라하니 (연모상사)  
 한 숨은 바람이 되고 (연모상사)  
 적무인(寂無人) 엄중문(掩重門)한데  
 (연모상사)  
 해지면 장탄식(長歎息)하고 (연모상사)  
 식불감(食不甘) 침불안하니(寢不安)하니  
 (연모상사)  
 지족(知足)이면 불욕(不辱)이요 (교회경계)  
 녹수(綠水) 청산(靑山) 깊은 골에 (인생행락)

우·계 반엽	남하여 편지 접지 말고 (교회경계) 담 안에 섰는 꽃이 (인생행락)
계면 이삭대엽	언약(言約)이 늦어가니 (연모상사) 황산곡(黃山谷) 돌아들어 (전가한거) 창오산봉(蒼梧山崩) 상수절(湘水絶) (연모상사) 황하원상(黃河遠上) 백운간(白雲間)에 (고사회고) 금로(金爐)에 향진하고 (연모상사) 이화우 훔날릴 재 (연모상사)
계면 중거	서산(西山)에 일모(日暮)하니 (연모상사) 산촌(山村)에 밤이 드니 (연모상사)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감물서경) 은하(銀河)에 물이 지니(연모상사) 요지(瑤池)에 봄이 드니 (복수송축) 울며 잡은 소매 (연모상사) 꽃보고 춤추는 나비(공규원모)
계면 평거	초강(楚江) 어부(漁夫)들아 (단심충절) 누구나 자는 창(窓) 밖에 (연모상사) 녹초(綠草) 청강상(淸江上)에 (연주충군) 뉘뉘 이르기를 (연모상사) 춘수(春水) 만사택(滿四澤)하니 (연모상사) 사랑 거죽말이 (연모상사)
계면 두거	임술지(壬戌之) 추칠월(秋七月) 기망(既望)에 (고사회고) 뒷뒹에 떼구름 지고 (연모상사)

천지(天地)는 만물지(萬物之) 역려(逆旅)요  
(인생행락)

설월(雪月)이 만정(滿庭)한데 (연모상사)  
백천(百川)이 동 도해(東 到海)하니  
(연모상사)

달 뜨자 배 떠나니 (연모상사)

계면 평롱 북두칠성(北斗七星) 하나 둘 서이 너이  
(연모상사)

각설(却說)이라 현덕(玄德)이 단계(壇溪)  
건너 갈제 (고사회고)

초당(草堂) 뒤에 와 앉아 우는 (연모상사)

옥돌이 돌돌이니 무디든지 (연모상사)

아자 아자 나 쓴든 되 황모(黃毛) 시필(試筆)  
(전가한거)

한 손에 막대를 들고 (백발차탄)

우조 우락 바람은 지동(地動) 치듯 불고 (연모상사)  
제갈량(諸葛亮)은 칠종칠금(七縱七擒)하고  
(고사회고)

만경창파지수(萬頃蒼波之水)에 (연모상사)

물아래 세(細)가락 모래 (연모상사)

유자(柚子)는 근원(根源)이 중(重)하여  
(연모상사)

앞 눈에 올혀를 비여 (인생행락)

군불견(君不見) 황하지수(黃河之水)  
(인생행락)

우·계 환계락 앞내나 뒷내나 중에 (전가한거)

- 사랑을 찬찬 엮동여 (연모상사)  
사랑을 사자하니 (이별애상)  
물아래 그림자 지니 (전가한거)
- 계면 계락 청산(靑山)도 절로절로 (강호한정)  
청산리(靑山裏) 벽계수(碧溪水)야  
(연모상사)  
노세 노세 매양(每樣) 장식(長息) 노세  
(인생행락)  
바람도 쉬어넘고 (연모상사)  
병풍(屏風)에 앞지 작근동 붙어진 께 그리고  
(연모상사)  
한 자(字) 쓰고 눈물 지고 (연모상사)
- 여창 계면 편삭 목단(牧丹)은 화중왕(花中王)이요  
(인생행락)  
대인난(待人難) 대인난(待人難) 하니  
(인생행락)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연모상사)  
오날도 저므러 지고 (연모상사)  
월일편(月一片) 등삼경(燈三更)인제  
(연모상사)  
옥(玉)같은 님을 잃고 (연모상사)  
붉은 새 글을 물어 (복수송축)  
문독춘추(文讀春秋) 좌시전(左氏傳)하고  
(고사회고)  
남산송백(南山松柏) 울울창창(鬱鬱蒼蒼)  
(감격군은)

전 연화(蓮花)는 오예스생으로 (교회경계)  
계면 태평가 이려도 태평성대(太平聖代) (인생행락)  
계·우·계 장진주 한잔 먹사이다 (음주취락)

## 2. 주제 분석<sup>6)</sup>과 해석

시조는 곡조나 작가 분류에 비해 주제별 분류는 용이하지 않다. 주제라는 것은 같은 대상을 읊었어도 자신의 감정을 각기 다른 주제로 나타내거나 다른 대상을 읊었어도 같은 주제를 나타낼 수가 있다. 시조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들이 대체로 하나의 주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조의 함의 내용의 모호와 분류자의 주관적인 한계 때문이다.

가곡은 우리 성악 중 정가로 전승되어 왔고 앞으로도 전승되어야 할 중요한 전통 양식이다. 가곡은 음악과 문학이 어울려 창사되기 때문에 음악과 문학은 서로 연관될 뿐만 아니라<sup>7)</sup> 가곡 향유층들의 풍류과 생활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곡과 가사의 주제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주제라도 향수자에 따라, 곡조에 따라 노래의 분위기나 함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주제들이 악보화된 가곡에 얹혀 불리워지고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본고의 주안점이다. 또한 가곡 진행에 있어서 곡과 가사 내용의 상관성도 아울러 논의해보고자하는 것이다. 가곡의 올바른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제의 모호성과 분석 대상의 소집단으로 위 세분화된 주제를 큰 틀로 유형화시켰다. 작은 집단의 세분화 통계는 신뢰도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

6) 주제는 서원섭의 주제 분류를 따랐다. 서원섭, 『시조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7, 8-9쪽 참조.

7) 조규익, 『가곡창사의 국문학적 본질』, 집문당, 1994, 98쪽.



가곡은 1926년 전까지는 구비전승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비전승은 물론 창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무리 문장을 잘 해도 성리에 능할 수 없으면 노랫말을 지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 능한 사람과 노래에 능한 사람이 따로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sup>8)</sup> 그렇다하더라도 가집의 편찬자가 노래를 모은 것은 신분 계층이나, 현실적인 제약보다는 인간의 자연적인 심성 때문에 편찬했으리라 생각된다. 작자의 신분이나 표면적인 윤리성의 존재 여부 같은 외부적인 조건들이 작품 취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9)</sup> 그러나 인간의 심성만으로 가사를 선택했다고도 볼 수 없는 이유는 정가 자체가 향유층이 지식층이다보니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데에는 근엄한 선비들로서는 여러 제약들이 따랐을 것이다. 이러한 제약들이 가곡에 반영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악보화된 것은 전승되어 왔던 가곡 창사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젠 전승된 가곡은 더 이상의 구비 전승없이 남녀창 41곡으로 고정되었다. 그것이 현재의 가곡 한바탕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에 와 가곡 41곡에 남창 100수 여창 88수 가사 내용의 주제 분류는 가곡사에 하나의 의미를 지을 수가 있다. 또한 곡과 선택된 가사와의 정밀한 관계 분석의 예비 작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1) 『교본역대시조전서』<sup>10)</sup>과 가곡의 남녀창의 비교 통계

『교본역대시조전서』에 수록된 3335 수 중 2759 수의 평시조의 주제와 남녀창 가곡의 비교는 문자로 기록된 역대 전체 시조 중 어떤 주제의 시조시들이 가곡에 취사 선정되었는지를 알게 해준다. 또한 가곡 대

8) 위의 책, 74쪽.

9) 위의 책 77쪽.

10) 심재완,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부분 향유자들이 지식층, 선비층이기 때문에 그들의 풍류 문화와 생활 문화가 무엇이었는지도 가곡의 가사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서원섭의 『교본역대시조전서』의 여러 주제<sup>11)</sup>들을 필자는 비슷한 주제 9항목으로 분류했다.

- 남녀간의 사랑 - 연모상사, 이별애상, 공규원모
- 자연의 즐거움 - 강호한정, 전거한거, 안빈낙도, 성세일민, 감물서경, 사계절후
- 인생의 즐거움과 무상 - 음주취락, 인생행락, 소요유람, 인생무상, 백발차탄
- 임금과 나라의 충절 - 감격군은, 연주충군, 단심충절, 우국개세, 장부호방
- 학문과 도덕 - 교회경계, 삼강오륜, 사친효도, 학문수덕
- 고사 회고 - 고사회고
- 추모와 송축 - 복수송축, 추모찬송
- 기탁과 풍유 해학 - 기탁풍유
- 기타 -

위의 항목으로 분류, 교본 역대시조사전과 악보화된 김기수 본 '남창 가곡 100선'과 '여창 가곡 88닐'을 조사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sup>12)</sup>

---

11) 서원섭, 앞의 책, 111쪽.

12) ① 『교본역대시조전서』.

서원섭, 『시조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91, 111쪽 참조.

- 남녀간의 사랑-연모상사(170), 이별애상(105), 공규원모(125). 도합 400수 \*14%.
- 자연의 즐거움-강호한정(175), 전거한거(227), 안빈낙도(30), 성세일민(53), 감물서경(322), 사계절후(31). 도합 838수 \*36%.
- 인생의 즐거움과 무상-음주취락(95), 인생행락(60), 소요유람(29), 인생무상(22), 백발차탄(75). 도합 281수 \*10%.
- 임금과 나라의 충절-감격군은(31), 연주충군(84), 단심충절(21), 우국개세(102), 장부호방(36). 도합 274수 \*9%.
- 학문과 도덕-교회경계(110), 삼강오륜(99), 사친효도(26), 학문수덕(58). 도합 293수 \*11%.
- 고사 회고-고사회고(128). 도합 128수 \*5%.
- 추모와 송축-복수송축(50), 추모찬송(104). 도합 154수 \*6%.
- 기탁과 풍유 해학-기탁풍유(91). 도합 91수 \*3%.
- 기타 \*16%.

	교본역대시조사전	남창가곡	여창가곡
남녀간의 사랑	14%	13%	58%
자연의 즐거움	36%	31%	10%
인생의 즐거움과 무상	10%	19%	15%
임금과나라의 충절	9%	15%	3%
학문과 도덕	11%	6%	5%
고사회고	5%	4%	6%
추모송축	6%	3%	3%
기탁·풍유·해학	3%	3%	0%
기타	16%	6%	0%

② 남창

- 남녀간의 사랑-연모상사(11), 이별애상(2). 도합 13수 \*13%.
- 자연의 즐거움-강호한정(14), 전거한거(6), 안빈낙도(4), 성세일민(1), 감물서경(5), 사계절후(1). 도합 40수 \*31%.
- 인생의 즐거움과 무상-음주취락(9), 인생행락(3), 소요유람(2), 인생무상(5). 도합 19수 \*19%.
- 임금과 나라의 충절-감격군은(5), 연주충군(4), 단심충절(1), 우국개세(3), 장부호방(2). 도합 15수 \*15%.
- 학문과 도덕-교회경계(2), 삼강오륜(1), 학문수덕(3). 도합 6수 \*6%.
- 고사 회고-고사회고(4). 도합 4수 \*4%.
- 추모와 송축-복수송축(1), 귀환축원(1), 불심지정(1). 도합 3수 \*3%.
- 기탁과 풍유 해학-기탁풍유(3). 도합 3수 \*3%.
- 기타-용비어천가(2), 향령무(2), 처용무(2) 도합 6수 \*6%.

③ 여창

- 남녀간의 사랑-연모상사(48), 이별애상(1), 공규원모(2). 도합 51수 \*58%.
- 자연의 즐거움-강호한정(1), 전거한거(4), 감물서경(4). 도합 9수 \*10%.
- 인생의 즐거움과 무상-음주취락(1), 인생행락(11), 백발차탄(1). 도합 13수 \*15%.
- 임금과 나라의 충절- 감격군은(1), 연주충군(1), 단심충절(1). 도합 3수 \*3%.
- 학문과 도덕-교회경계(3), 사친효도(1). 도합 4수 \*5%.
- 고사 회고-고사회고(5). 도합 5수 \*6%.
- 기탁과 풍유 해학- 기탁풍유(0). 도합 0수 \*0%.
- 추모와 송축-복수송축(2), 추모찬송(1). 도합 3수 \*3%.
- 기탁과 풍유 해학-도합 0수 \*0%.

## 2) 해석

## ① 『교본역대시조전서』과 남창 가곡

『교본역대시조전서』과 남창 가곡과의 주제는 남녀간의 사랑이나 자연의 즐거움과 임금과 나라의 충절 등의 주제만이 별 차이없이 바뀌었을 뿐 다른 주제들은 비유에 있어서는 비슷하다. 이는 가곡의 향유층이 주로 선비층이었던 관계로 정치적인 이유로 향리로 돌아와 자연과 벗삼았던 그들의 생활상과 무관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비들의 이상은 학행일치였으며 그들의 덕목은 청렴·청빈·절제·검약이었다.<sup>13)</sup> 그들은 남녀간의 사랑이나 자연 외에도 인생의 즐거움과 무상, 임금과 나라의 충정, 학문과 도덕과 같은 그들의 삶과 관련된 여러 주제의 시조들을 창작했다. 선비들이 가곡의 향유층이었던 만큼 그들의 풍류와 생활상이 그대로 가곡으로 흡수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 ② 남창 가곡과 여창 가곡

남창와 여창 가곡의 주제면에서의 두드러진 차이는 남녀간의 사랑이다. 특히 남녀간의 사랑에 관한 주제의 비중이 여창이 남창에 비해 4배 이상이나 높다. 인간 이별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거나 떠나간 님에 대해 원망하거나 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리움 같은 것들은 인간 본연의 본능일 것이다. 이러한 감정 표출이 특히 여성에 의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남존여비, 여필종부, 부창부수와 같은 성윤리에 억눌려 있던 조선 여인들이 짧잖은 가곡이라해도 노래로서나마 그들의 본능을 풀어내려고 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서민들처럼 판소리, 민요, 잡가와 같이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이다. 양반 음악이기 때문에 가곡 선율 자체도 심한 기

13) 정옥자, 『우리선비』, 현암사, 2003, 29-59쪽.

복이 없고 완만하며 여유가 있다.

남창과 여창은 가락 자체는 비슷한 점이 많으나 남창 가곡은 속칭을 사용하지 않고 여창 가곡만이 속칭을 사용한다. 속칭을 얼마나 잘 풀어 내느냐에 따라 여창 가곡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남창 가곡은 뱃속 깊이 울려나오는 힘있는 소리를 내기 위해 생목이나 걸목을 쓰지만 여창 가곡은 속칭을 쓴다. 속칭을 깊이 우려내야 좋은 목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창은 곱고 티없는 아름다운 목소리이어야 한다. 남창 가곡은 장중하고 깊은 맛이 있는 반면 여창 가곡은 섬세하고 우아한 맛이 있다. 곡 자체도 부드럽고 아정해서 그런 가락에 남창 가곡 처럼 학문, 도덕 충절, 풍유, 해학 같은 주제들을 얹어서 부르기가 적당치 않다. 이렇게 여창 가곡은 남녀간의 사랑과 같은 주제들과 매치되어야 곡자체가 어울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여창 가곡에서 남녀간의 사랑의 주제들이 다른 주제들에 비해 60%나 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일 것이다.

다음은 가곡의 순서에 따른 곡과 주제의 변화이다. 이러한 가곡 구성은 옛선비들의 생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남창 가곡 100수 중 58수가 무명씨 작이고 42수가 유명씨 작이다. 유명씨 대부분이 선비층들이다.

다음은 장사훈 교수의 「작곡과 인생」이란 글 일부이다.

주안상이 벌어지기 전에 풍류가 빠질리 없고 이어 가곡이 시작되나 좌정한 선비들의 체모는 아직도 근엄하기만 하다.

이것이 우조 초삭대엽<sup>14)</sup>에서 계면조 소용까지 과정이다. 이윽고 순배가 돌

14) '初數大葉, 貳數大葉, 三數大葉, 編數大葉'에서 數를 '삭'이나 '수'로 읽기도 한다. '세다'라는 뜻으로 쓰면 '수'요, '빠르다'란 뜻으로 쓰면 '삭'이다. 만·중·삭으로 원래는 '빠르다'란 뜻으로 쓰이나 하규일 시대(1920)에도 수로 읽었고 그 이후에도 국악계에서는 지금까지 수로 읽고 있음을 볼 때 하나의 관습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하나는 初數大葉, 貳數大葉, 三數大葉에서 보면 數에는 '빠르다'란 뜻 외에 초수, 이수, 삼수로 볼 때 '세다'라는 순서

아감에 따라 점잖은 농담이 오가고 차츰 너털 웃음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언롱 이하, 즉 농과 낙의 노래가 대변해주고 있다. 술이 거나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체모를 가누지 못하고 해학과 외설로 파안대소하며 딱딱한 처신을 잠시나마 잊어본다. 편 이하의 노래에서는 나를 잊고 이러한 자유 분위기를 만끽한

그러나 이와같이 흐트러진 자세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는 없다. 기웃둥하게 이즈러진 갖을 바로 잡고 옷깃을 다시 여미고 큰 기침을 하며 자세를 가다듬어야한다.

이것이 가곡의 대미를 장식하는 태평가이다. 서창인 초삭대엽으로 시작하여 계면 소용까지는 원래의 자세를 유지하다가 농·낙·편으로 내려가면서 질탕하게 놀고 태평가에서 다시 자세로 돌아가는데 태평가는 이삭대엽의 변화곡이므로 태평가는 처음의 이삭대엽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남창가곡100선』중에서 언롱 이하 가곡 대부분은 작자 미상이다. 우조 초삭대엽에서 계면 소용까지 51수 중 32수가 유명씨 작으로 63%이고 계면 언롱에서 태평가까지 49수중 유명씨 작이 10수로 20%이다. 우조 초삭대엽에서 계면 소용까지가 정격적인 가곡이며<sup>15)</sup> 여기까지가 대개 유명씨의 작품으로 건설한 시조시를 중심으로 노래를 부른다. 그러나 소용 이하 언·낙·편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다. 주제 또한 전자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내용 자체가 파격적이며 창법 또한 재미있다.

근엄의 우조 초삭대엽과 파격의 계면 소용이의 시조시를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된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

의 의미도 들어있다고 생각된다. 하규일 님도 수라고 불렀던 만큼 그 이전에도 수로 읽었을 공산이 크다. 더군다나 한문세대였던 하규일 님도 數가 ‘빠르다’란 뜻을 몰랐을리 없을 것이다.

이상은 중요 무형문화재 31호 김경배 교수님의 견해이다.

15) 장사훈, 『국악총론』, 세광음악출판사, 1985, 446쪽.

소치는 아해눔은 상괴아니 일었느냐  
 재넘어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허느냐  
 -남구만

어흐마 괴 뉘오신고  
 건넌 불당의 동령 중이 올러니  
 홀거사의 홀로 자시는 방안에 무시것 허러 와계신고  
 홀거사님의  
 노감탁이 벗어거는 말 곁에 내 고깔 벗어 걸러 왔읍네  
 -무명씨

이 두 시조시는 곡과 시조시의 내용이 판이하다. 전자는 가곡의 원곡이며 정격의 시조시를 사용하며 속도가 느린 반면 소용이는 변주곡이며 파격의 시조시를 사용하며 빠른편이다. 전자의 곡태는 ‘긴소매로 춤을 잘 추고, 버들이 봄바람에 휘날린다.16)’로 되어 있고 후자의 곡태는 ‘사나운 바람 불고 소나기 몰아치는 하늘에 번개처럼 오가는 제비와 같다.17)’라고 표현하고 있다. 곡태가 다르면 시조시 역시 다를 수 밖에 없다. 소용이 이후부터 근엄하기 짝이 없던 선비들의 갓끈은 풀어지기 시작한다.

전자의 주제는 전가한거가 10%, 연모상사가 10%, 강호한정이 16%, 음주취락이 6%인 반면 후자의 주제는 전가한거가 2%, 연모상사가 12%, 강호한정이 12%, 음주취락이 12%이다. 주안상이 벌어지기 전에 풍류가 빠질리 없다. 전자의 가곡은 선비들의 체모가 근엄하고 노래 자체도 짙다. 몇 순배 돌아가면 해학과 외설, 농담이 오고간다. 후자의 가곡이 바로 이러한 분위기의 곡들이다. 곡과 가사가 대체로 매치되고 있다. 후자의 연모 상사나 음주 취락의 주제가 전자의 전가한거나 강호

16) 가곡원류. 長袖善舞 綠柳春風

17) 해동가요, 가곡원류. 暴風驟雨 飛燕橫行.

한정의 주제보다 많은 것도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후자의 작자 미상의 시조시가 많은 것은 젊잖은 선비들이 해학이나 외설 같은 분위기의 시조시들을 실명으로 창작하여 부르기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교양, 체면이 있는 양반이고 보니 노는 자리에서 우스꽝스럽고 외설적인 노래를 지었다해도 이름을 밝힐 수는 없었을 것이다. 흥취를 돋구기 위해 서민적인 소재를 솔직하게 털어놓은 서민들의 작품들을 끼워 불렀을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의 윤리 의식이나 신분 제도로 보아 외설적인 작품들은 선비가거나 서민이거나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가곡이 같은 곡에 여러 시조시들을 끼워부르기는 했으나 전혀 다른 시조시들을 가감 없이 부르지는 않았다. 위의 통계는 곡과 가사의 내용이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갖고 있음을 방증해주는 예가 된다.

가곡은 남창, 여창, 남여창이 있는데 부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대체로 빠르기 순서로 되어 있으며 초삭에서 삼삭대엽까지는 느린 속도이고 농·낙의 곡조들은 중간 속도, 편에서는 빠른 속도이다. 만·중·삭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태평가에서 아주 느린 템포로 되돌아와 종지하는 것이다. 태평가는 이삭대엽의 변화곡이므로 처음의 이삭대엽으로 돌아가는 셈이 된다. 가곡은 서창인 초삭대엽으로 시작하여 이삭대엽 이하 소용(우조 및 계면조)까지 원래의 자세를 유지하다가 농·낙·편으로 내려가면서 질탕하게 놀고 태평가에서 다시 제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다.<sup>18)</sup>

여창 가곡이라 해서 남창 가곡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창 가곡 역시 우조 이삭대엽에서 계면 두거까지의 정격 가곡에서 유명씨의 작이 53수 중 23수이다. 43%에 해당되는 작품이 유명씨 작이

18) 장사훈, 『국악총론』, 450쪽.



다. 그러나 농·낙·편에 가서는 35수 중 8명이 유명씨이다. 23%에 해당된다. 남창에 비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여창가곡이 남녀간의 사랑의 주제가 남창에 비해 4배 이상을 감안한다면 비율에 있어서는 큰 변화라고는 볼 수 없다.

임금과 나라에 대한 충절이라든지, 학문, 도덕, 추모 송축이나 기탁·풍유·해학같은 주제들이 특히 여창에 있어서 남녀간의 사랑이나 자연에 대한 즐거움, 인생의 희로애락에 비해 그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은 조선 시대의 남성 위주의 윤리나 신분, 사회 제도의 제약 때문에 그랬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양반들이 당시에 서민들이 부르는 판소리나 민요, 잡가 같은 것을 부르기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가곡의 농·낙·편 같은 해학·외설의 질탕한 놀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다. 잠시나마 농·낙·편에서 체모를 벗어던지고 스트레스를 풀고 마지막 곡인 젊잖은 태평가에서 흐트러졌던 갖과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바로잡는 가곡이야말로 옛선비들의 풍류와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맨 끝 곡인 태평가는 그 주제가 인생 행락이다. 요순과 같은 태평성대에 놀고 놀자는 주제이다. 가곡이라는 선비들의 풍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나의 바램일 것이다. 그것은 모든 것이 임금의 덕을 칭송하고 그 덕이 온 천하에 퍼져 백성들도 이에 발맞추어 태평성대를 구가하자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이러한 가곡의 한 바탕이 선비들의 생태인 것이다.

#### IV. 결론

『가곡원류』는 고종 13년(1876년) 박효관과 안민영의 편찬한 시조집이다. 총 855수 중 남창이 664수, 여창이 191수이다. 이렇게 가곡원류 시절 가곡은 엄청난 양이 연습표에 의해 불리워졌다. 이는 창에 의한 구비전승이었다. 이러한 가곡은 1926년 금하 하규일에 의해 처음으로 현대 악보로 채보되었다.

그 후 죽헌 김기수는 금하 하규일, 두봉 이병성, 운남 이주환, 운초 장사훈 채보분을 참고하여 1979년 판 남창 가곡 100선과 1980년 판 여창 88수의 가곡을 악보화했다.

이 악보의 시조시가 본고의 연구 대상이었다. 어떤 주제들이 악보화 되어 현재에 이르렀는가가 필자의 관심거리였다.

가곡은 전바탕 27곡으로 곡수는 남창 26곡 여창 15곡 합 41곡이다. 이것이 작금에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악보화되어 있고 불리워지고 있는 남창 가곡 100수와 여창 가곡 88수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는 것은 일단의 가곡사에 하나의 자리 매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양반 음악인 가곡의 가사 내용은 당시 선비들의 풍류상과 생활상을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구비전승되어 왔던 가곡 중 188곡으로 채보된 가곡은 가곡사에 나름대로의 대표격인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다.

다음은 채보된 188수를 소주제로 분류하고 편의를 위해 이를 다시 9개 항목으로 분류, 이에 대한 해석의 결과이다.

첫째는 『교본역대시조전서』과 남창 가곡의 비슷한 주제 분포이다.

이는 가곡의 향유층이 주로 선비층이었던 관계로 정치적인 이유로 향리로 돌아와 자연과 벗삼았던 선비들의 생활상과 무관치 않음을 보

여주고 있다. 시조 문학 자체가 선비층의 문학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상과 풍류, 생활상이 그대로 가곡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남창과 여창 가곡에 있어서의 남녀 사랑의 주제의 현격한 차이이다.

남녀 사랑의 주제 표출이 특히 여성에 의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시 성윤리에 억눌려 있던 조선 여인들의 놀이 문화가 흔치 않았던 관계로 인간적인 어쩔 수 없는 표현 본능을 그녀들의 놀이 문화인 가곡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녀 애정 관계에 있어서 현재 문학으로 존재하는 『교본역대시조전서』와 여창 가곡의 주제와의 현격한 차이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가곡 진행상의 주제 변화이다.

가곡은 남창, 여창, 남여창이 있는데 부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대체로 빠르기 순서, 만·중·삭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창 초삭대엽으로 시작, 이삭대엽 이하 소용까지 원래의 자세를 유지하다가 농·낙·편으로 내려가면서 질탕하게 놀고 태평가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게 곡과 가사내용이 대체로 매치되어 있다. 상황에 따라 가사의 내용과 다를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곡과 가사의 정밀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할 것이다.

넷째는 농·낙·편으로 가면서 무명씨의 작품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가곡의 진행과 주제의 변화와 연관이 되고 있다. 농·낙·편 이후 외설의 주제가 노골화되고 있다. 이런 주제들은 당시의 윤리관으로 인해 실명으로 거론하기에는 선비들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섯째는 인생행락의 주제인 태평가가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평가는 이삭대엽의 변화곡이다. 매우 느리고 화평스러운 기분을 자아내는 곡이다. 처음 선비들의 근엄한 자세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다. 농·낙·편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마지막 곡인 젊잖은 주제 태평가로

자세를 바로잡는 가곡이야말로 옛선비들의 풍류와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는 가곡이라는 선비들의 풍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태평성대를 구가하고자하는 선비들의 이상의 메시지 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가곡원류』, 은하출판사, 1989.  
김기수 편저, 『정가집』, 은하출판사, 1995.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9.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아세아 문화사, 1992.  
서원섭, 『시조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7.  
서한범, 『국악통론』, 태림출판사, 1997.  
신용순, 『현대시조시학』, 문경출판사, 2001.  
심재완, 『교본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원용문, 『시조문학원론』, 백산출판사, 1999.  
이태극, 『시조개론』, 반도출판사, 1992.  
장사훈, 『한국음악사』, 정음사, 1976.  
\_\_\_\_\_, 『국악총론』, 새광음악출판사, 1985.  
\_\_\_\_\_, 『시조음악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정옥자, 『우리선비』, 현암사, 2003.  
조규익, 『가곡창사의 국문학적 본질』, 집문당, 1994.  
한국시조학회 20집, 『시조학논총』, 한국시조학회, 2004.

<Abstract>

## A Study on Sijo Poem's Subject of Gagok

Shin Woong-Soon

This paper's target is two music books, 100 man's Gagok songs and 88 woman's Gagok songs compiled by Kim Kee-soo.

The next is an interpretation on 9 subject classifications.

1. There is a similiarity in subject between 『kyobonyukdaesijo's collection』 and man's Gagok song.
2. There is a wide difference in man and woman's love subject between man's Gagok songs and woman's Gagok songs.
3. The subject changes as Gagok progrreasses.
4. There are many nameless writers in the prograss of Nong · Nak · Peon.
5. Taepeongga, whose theme is to enjoy pleasure, forms the last beauty.

Sijo poem's subjects, which belongs to the noble class, shows the mode of scholar's elegant life at that time.

*Keywords* : gagok, man's Gagok song, woman's Gagok song, chosudaeiep, soyoong, taepyongga, love, nature, Hag Gyu-il, Kim Gi-Soo.